

기업들의 생성형 AI 활용방식

리서치·데이터 분석

38.2%

업무효율화

35.5%

혁신·학습

13.2%

비즈니스 운영

5.3%

콘텐츠·마케팅

3.9%

미사용

1.3%

기타

1.3%

기업 절반 “경영여건 작년과 비슷”

경제환경 체감점수는 ‘52점’ 불과

주요기업 2026 경영전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대내외 경영 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3.7%가 ‘2025년과 비슷’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비 ‘소폭 개선’ 25.6%, ‘소폭 악화’ 19.5% 그리고 ‘크게 악화’ 1.2%로 각각 나타났다.

‘경영여건 개선 시기’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5.8%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올해 2분기(18.6%) ▲올해 3분기(16.9%) ▲올해 4분기(11.9%) ▲올해 1분기(6.8%) 순으로 많았다.

경영여건 개선 시기 46% ‘2027년 이후’
올해 2분기 19%, 3분기 17%, 4분기 12% 등
기업 77% “올해 투자, 작년과 비슷할 것”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 점수는 ‘60점’ (26.8%)과 ‘40점’ (23.2%)에 주로 집중돼 있는 가운데 50·70점(각 18.3%), 30점(12.2%), 80점(1.2%) 순으로 파악됐다. 10·20·90·100점을 준 기업은 없었다.

◆ ‘내수 부진’ 등 가장 걱정…규제 개혁 등 ‘기대’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영 리스크 요인’ (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 (45.1%), ‘관세·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39%), ‘환율 변동성 확대’ (36.6%)를 주로 지목했다. ‘세제 및 인허가 등 국내 정책·규제 리스크’ (28%)도 주요 우려 요인이었다.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 (〃)로는 ▲내수부진(54.9%) ▲규제 부담(48.8%)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35.4%) ▲인력 수급 및 인건비 상승(28%) 등이 꼽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소해 보이는 규제 하나가 기업 경쟁력과 생존은 물론 국가 성장 속도까지 좌우한다”면서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투자 위축은 성장 정체→고용 감소→세수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올해의 국내 투자(사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훌쩍 넘는 76.8%가 ‘2025년과 비슷’이라고 답했다. ‘투자 확대’ 답변은 17.1%에 그쳤다. 6.1%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나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 등을, 줄이겠다는 곳들은 규제 강화 등 국내 투자환경 악화, 원자재값 상승 위험 등을 각각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로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61%)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31.7%)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28%) ▲수출 기업 지원 및 통상 불확실성 해소(26.8%) 등을 간절하게 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우리도 한국 경제 대전환 즉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한다. 나아가 ‘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는 ‘저성장’, 원·달러는 ‘고환율’ 고착화

한국 경제의 2%대 성장률은 점점 ‘꿈’이 되고 있다. 본지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6.8%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대’ 전망은 11%로, ‘1% 미만’ (12.2%)이 될 것이란 답변보다도 적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로 각각 내다봤다. 그나마 2025년보다 나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보다 높은 2.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들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뒤야 할 중장기 정책 과제’ (〃)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75.6%)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46.3%) ▲글로벌 통상 전략 강화(31.7%)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지수 전망치에 대해선 ‘4000~4500’ (43.9%)과 ‘4500~5000’ (23.2%)을 가장 많이 내다봤다.

올해 코스피지수를 놓고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정책 가장 시급
김기문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국내 ‘GDP성장률’ 1%대 전망 기업 77%

2026년 코스피지수 상단의 경우 현대차증권이 5500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5300), 부국증권(5000) 등이 5000 돌파를 점치고 있다.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3.2%가 달러당 1400~1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중에서도 1400원대 초반(31.7%)보다 후반(41.5%)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기준금리(2.5%)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47.6%로 가장 많았다.

올해 평균 유가 전망치는 ‘50~70달러 사이’ (71.9%)가 압도적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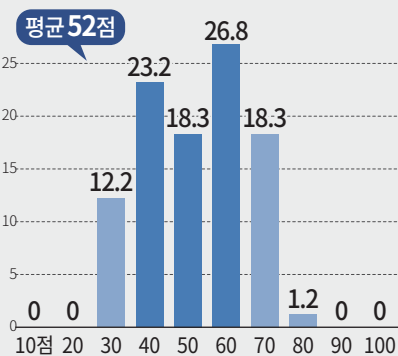
메트로경제가 대·중견·중소기업 82곳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해 기업들은 평균 5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쳤다. /손진영 기자 son@

기업들 2곳 중 1곳은 2026년 경영 여건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을 힘들게 버텼지만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경영여건이 개선될 시기로 ‘2027년 이후’를 꼽았다. 내수 침체, 미국 관세 전쟁 등 통상 이슈, 국제 정세 불안,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악은 지났지만 회복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들이 매긴 국내 경제 환경 체감 점수는 평균 5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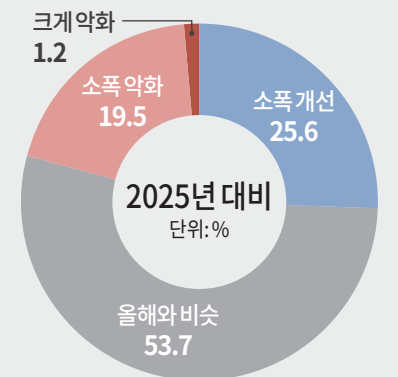
이같은 내용은 메트로경제가 금융·증권·건설·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82곳이 답변한 내용을 분석,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경제 환경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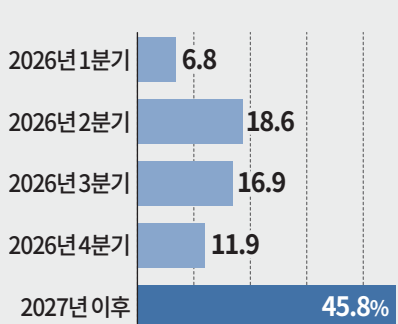
단위: %



올해 대내외 경영여건 전망



경영여건 개선 예상시기



자료/메트로경제

생성형 AI 도입·활용 범위 설문

대부분 AI 도입 했지만 아직 실험·기술 습득 중 ‘상시적 활용’ 6% 그쳐

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곳도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AI나 생성형 AI를 아직은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AI를 상시적으로, 또는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AI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관련 투자 역시 소극적인 상태다.

방향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능 모양새다.

메트로경제가 8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 2일 내놓은 결과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를 ‘리서치·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38.2%)이나 ‘상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증가’ (35.5%) 등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AI 사용 경험에 없다’는 답변은 단 1곳(1.3%)에 그쳐 많은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CEO들 역시 생성형 AI 활용 이유로 ‘AI를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 실험 중’ (53.7%)이거나 ‘AI 활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경험·사용 습득 중’ (30.5%)이라고 답했다. 다만 ‘상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6.1%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AI 구축에 대한 실행(확대) 계획 수립’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혁신 가속화(30.5%) ▲업무 자동화(23.2%) ▲효율성 개선(17%) 등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AI 구축 실행계획이 있다면 예산의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냐’는 물음에는 전체의 81.7%가 ‘2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40% 이상’은 한 곳도 없었다.

‘AI 투자 후 수익 실현을 예상하는 기간’에 대해선 대부분이 ‘3~5년’ (48.8%) 또는 ‘5년 이상’ (22%)을 꼽았다. 비교적 짧은 ‘1~3년’도 20.7%였다.

/김승호 기자·김민술 인턴기자 bada@metroseoul.co.kr